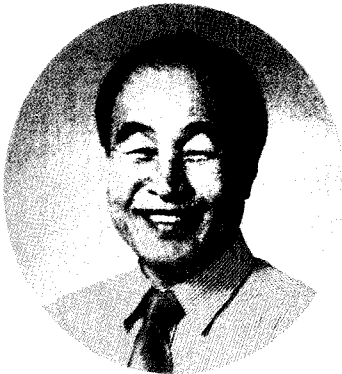


뉴질랜드 (4)

New Zealand Beekeeping Industry (4)



우 건 석 서울대 명예교수
아시아 양봉연구협회 부회장
(사진제공:Sue M McConnell)

Prof. Woo, Kunsuk, Seoul
NatL.University
Vice President of Asian
Apicultural Association

지난호에 소개드린 내용 중에서 블랙비치에서 생산된 감로꿀은 당분을 함유한 깍지벌레의 분비물질인데 꿀벌이 수집해 저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깍지벌레는 나무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흡수하는 해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잎갈나무(낙엽송)에서 생산되는 감로꿀과는 수집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감로꿀을 뉴질랜드나 유럽 여러 나라의 소비자가 애용하고 있으며, 가격도 비싼 편이라 생산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호에도 중요한 밀원식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마히(*Weinmannia racemosa*)식물은 뉴질랜드의 아열대우림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숲의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밀원은 저지대와 산간지역의 숲에서 자라고 있으며, 남북섬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25m까지 자라고, 흉고직경이 1.5m나 되는 큰 나무입니다. 해안으로부터 해발 900m되는 곳에 걸쳐 분포합니다. 꽃은 흰색이며 꽃

대가 긴 꼬리처럼 길어 11cm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개화기간은 11월부터 1월까지 계속 피며 향기도 좋고 유밀량이 많아서 양봉가가 아끼는 밀원입니다. 어린나무는 색깔과 생김새가 좋아 꽃꽂이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붉은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벌꿀의 향기는 중간정도이며, 크림형이거나, 버터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밀원에서 단일식물 벌꿀이 생산되고 있고 벌꿀의 색깔은 밝은 호박색을 띕니다.

고 스

지난해 7월 협회보에 소개된 밀원식물이지만 뉴질랜드의 남섬에서는 화분이 풍부한 밀원으로 양봉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줄기에 센 가시가 많고, 키는 1~3m로 자라며, 노란꽃이 피는데 향기가 아주 강하고 달콤합니다. 꽃송이의 크기는 15~20mm나 됩니다.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해안 절벽에서도 왕성하게 자라는 덩불성 식물이며, 집단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3~7월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구에서 뉴질랜드로 옮겨온 잡초 식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고스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나 화분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양봉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결국 화분을 공급하는 밀원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레포나무

(*Strblus heterophyllus*)

키가 12m나 자라는 상록활엽관목식물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퍼져있고, 저지대의 숲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줄기의 굵기는 직경 60cm정도로 자라며, 나무껍질은 거의 흰색 같은 회색을 띕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은 습도가 높은 토양조건에서도 생존력이 매우 높습니다. 잎은 길이가 8~25mm이고, 잎의 폭은 4~12mm인 길쭉하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기간이 긴 편이며, 특히 나무에서 우유빛 수액이 많이 분비되므로 유럽정착민들은 이 수액을 대용 우유로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숲의 가장자리 나무로 군락을 만들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Streblus asper*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 분포하는 나무로 5~15m까지 자랍니다. 이 나무의 수피는 이질과 설사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누카식물

기름에 튀겨낸 붉은 색의 열매는 혈액성 질병의 재생에 효과를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헤케타라(*Orearia rani*)

헤케타라(*Orearia rani*)는 키가 4~8m로 자라는 작은 나무에 속합니다. 하얀 꽃에 노란색의 암술을 지녔으며, 숲의 가장자리에 많이 퍼져 번식해 나갑니다. 해발 8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북섬전체가 남섬의 말보로우 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꽃은 한 개의 꽃대에 열개정도 매달려 핏니다. 꽃머리의 직경은 1cm쯤 되어 벌들이 화분과 화밀을 수집하는데 형태적으로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 뷰 글라스 (*Echium vulgare*)

유럽 자생식물이며, 서유럽 및 중앙아시아에



lwir amy 품종

도 분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은 처음 핑크색이었다가 차츰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유럽 자생종의 꽃의 크기는 15~20mm이며, 꽃피는 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이고, 화밀의 향기는 연한 편에 속합니다.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보리지꽃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달맞이 식물을 많이 닮은 편입니다. 이 식물은 유지식물이기도 합니다. 종자에서 감마리놀레익산(GLA)이 풍부한 식물이며, 드물게는 Stearidonic 산(SdA)도 이 식물의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남섬 중앙지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꽃은 여름내내 핏니다. 줄기와 잎 뒷면에는 짧은털이 많이 나 있는 편이며, 나무의 키는 30cm~1m로 자랍니다. 꽃의 모양은 트럼펫과 비슷한데 크기는 1~2cm정도입니다. 이 식물은 석회질이 풍부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한 개활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개화시기는 12~3월까지입니다.

바이텍스(*Vitex lucens*)

뉴질랜드에서는 푸리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로 20m나 높이 자라며, 북섬의 북부해안 지역을 따라 거의 섬 크기의 반까지 분포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도입되었던 바이텍스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해발 760m까지 분포가 확산되어 자라며, 흉고직경이 1.5m나 됩니다. 꽃은 핑크색이고, 화밀의 분비가 매우 많습니다.

꽃은 거의 연중 피는 편입니다. 열매는 밝은 붉은색갈이며, 직경이 2cm되니까 우리나라의 동백나무 열매와 비슷합니다. 광선이 풍부한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목형이라는 나무와 미국에 분포해 있는 체이스트 나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포후투카와

(Metrosideros excelsa)

처음 소개했던 대로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안지대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여름에 진홍색꽃이 피니다. 벌꿀은 크림상태로 생산하여, 버터캔디의 향과 맛이 납니다. 진홍색의 꽃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더욱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키가 25m나 자라고 직경이 4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주에 분포하는 다른 종류인 나무는 뉴질랜드의 동부해안의 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꽃피는 시기는 11~2월까지입니다. 뉴질랜드에는 12종이 알려져 있는데 동부해안에 자라는 나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맺는말

적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는 반대쪽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사계절이 우리나라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확연히 구분하기가 어려



블랙비치

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연간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기후는 온화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중에도 아침, 저녁 그리고 낮 시간의 온도차이는 매우 큰 편입니다. 벌집모양인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의 자연사랑과 꿀벌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으로 양봉의 역사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꿀벌을 건강하게 키우려는 농민들의 열정과 양봉생산물을 고품질로 만들려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뉴질랜드 양봉산업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뉴질랜드 양봉산업 현장을 탐방하면서 정보를 얻고 양봉인과 연구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양봉편을 마무리 하면서 뉴질랜드 농무부의 Dr. Bolger, 원예연구소의 Dr. Mark Goodwin, Arataki양봉장의 Mr. Russell Berry, 그리고 뉴질랜드 양봉협회 회장 Dr. Jim Edwards, Asure Quality의 Dr. Murray Reid, Dr. Tony Roper 등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봉**



마누카나무숲